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후각을 통한 비가시적 존재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백예원

후각을 통한 비가시적 존재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백예원

인 준 서

백예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향기를 주제로 제작된 본인의 관화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배경과 조형적 표현 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감각과 지각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 하고 인지하는데서 그치고, 어떤 사람은 감각, 지각에 대한 감정과 기억을 바탕으로 심상을 떠올리기도 한다. 사실 예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표상(表象)은 상상과 유추를 통해 본인만의 주관적인 표상으로 발전하여 표현되어 진다. 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몸짓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창조적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감각은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인간은 오감으로 이 감각을 분류해 놓았는데 하나의 감각으로 기인해서 다른 것들이 상호 연관되는 공감각적인 부분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감각의 연상 작용 또한 인간의 오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오감의 감성은 우리 내면에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다른 영역간의 은유적인 관계가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마다 개인적인 감성요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감성은 경험을 수반한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의 능력이라 볼 수도 있고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이 때로는 즉흥적으로 또는 사유를 통해 표출된다.

본인은 오감 중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가시적 존재인 후각에 의한 향기가 다양한 감성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하나의 조형적 재료가 되었다. 후각을 기인해 느껴졌던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존재의 특징을 처음에 감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각하고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가시화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기인된 기억의 감정과 정서는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내면의 흔적이 조형화 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것과 같다. 마치 우리가 음악을 듣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 듯 후각적 자극으로 인한 향기의 표현 또한 내면에 정서적 감흥을 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감흥이 일어나는 것은 향기로 인하여 다른 영역과의 교류로 인해 공감각적인 심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어떤 특정한 향취로부터 느껴지는 심상이나 형태를 사물에 투영시켜 향기와 온기가 각인된 간접적 대상물인 컵과 식물을 통해 이미지로 이끌어내고자 하였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추상적 형태와 구체적인 형태가 결합되어 표현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형태 왜곡과, 향기를 각인시키는 엠보싱 작업 등 판화의 확장된 기법과 응용된 판화 기법을 혼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과정 후에 행해지는 촉각적인 표현으로서의 드로잉을 통해 향기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 활동을 돌아보면서 작품의 형성배경을 되짚어보고, 표현 과정을 사진과 작품설명을 통해 이해를 유도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된 작업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오감(五感)에 의한 정서와 감성의 표출	3
1) 비가시적(非可視的) 존재로서의 후각	3
2) 후각적 자극으로 인한 기억과 정서의 표출	6
3) 향의 근원적의미로서의 컵과 식물이미지	9
2. 후각의 형상화를 위한 조형적 특징	12
1)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되어진 형태	12
2) 후각을 각인시키는 엠보싱	18
3) 촉각적 드로잉	22
3. 작품분석	24
III. 결 론	40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품목록

- [작품 1] 백예원, a cup II, 80x55cm, digitalprint, embossing on paper, 2010
- [작품 2] 백예원, a cup VI, 120x100cm, digitalprint, collagraphy on paper, 2010
- [작품 3] 백예원, Scent story, 21x29.7cm, digitalprint, embossing on paper, 2012
- [작품 4] 백예원, Overflow.., 100x125cm, digitalprint, monotype, embossing, pencil on paper, 2010
- [작품 5] 백예원, The scent of drinking, 각각 56x76.5cm, P.S lithography, linocut, embossing on paper, 2011
- [작품 6] 백예원, 조용한 향기, 110x56cm, digitalprint, monotype, embossing on paper, 2011
- [작품 7] 백예원, Leave the scent, 47x70cm, digitalprint, etching, embossing, conte on paper, 2012
- [작품 8] 백예원, Untitled, 65x98cm, digitalprint, etching, embossing, conte on paper, 2012
- [작품 9] 백예원, Floral cup III, 78x100cm, 종이 위에 엠보싱, 콘테, 2012
- [작품 10] 백예원, a cup III, 80x55.7cm, digitalprint, collagraphy on paper, 2010

도판 목록

- [도판 1] 철망, PVC(염화비닐수지), 아연판
- [도판 2] 하드보드지와 모델링페이스트를 이용한 판
- [도판 3] 모델링 페이스트와 철망을 이용한 판
- [도판 4]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해 선을 표현한 확대 모습
- [도판 5]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
<절규, The Scream>, 마분지에 유채물감, 템페라, 파스텔
91×73.5cm, 1893
- [도판 6]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
<기억의 지속, The Persistence of Memory>,
캔버스에 유화, 24.1cmx33cm, 1931
- [도판 7] 시튼스미스((Seton Smith, 1955~), <Windows>,
Cibachrome on Plexiglass, 182x123cm, 1997
- [도판 8] 시튼스미스((Seton Smith, 1955~), <Heart pitcher>,
Cibachrome on Plexiglass, 180x122cm, 1997
- [도판 9] 디지털 환경의 작업 과정
- [도판 10] 디지털 환경의 작업 과정

I. 서론

인간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모두 감각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한다. 예술가들은 특히 이러한 경험을 자신만의 독특한 형식과 주관적인 형상으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추상적으로는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나 파울클레(Paul Klee, 1879~1940)와 같이 음악적인 관념을 회화로서 표현하기도 하였고, 표현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의 화가들도 관념이나 정서를 표현 하기위해 기존의 대상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자신만의 조형적 세계를 표현하였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은 감각 그 자체를 회화로서 느껴지도록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무심코 지나 갈 수도 있는 인식이지만 감각적 대상이나 외적현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마음속에 어떠한 심상으로 작용하여 큰 의미로서 다가오기도 한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이상의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시화시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거나 또는 당연시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들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본인은 오감 중 후각을 통해서 느껴진 향기를 인지하고 그에 따르는 향취에 대한 기억의 감정과 정서를 내면에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표출의 의미로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상을 왜곡하고, 질감의 변화와 같은 본인만의 조형적인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변환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업 중에서 향기를 주제로 비가시적인 존재를 가시화 하기위해 조형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풀어내고 객관화, 조형화 되었는지 그 과

정을 보여주고 후각으로부터 기인된 향이 본인의 개인적인 감성에 영향을 끼친 형성배경에 대해서도 서술할 것이다.

본론의 1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의 내용적 부분과 작품의 형성배경을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인간의 오감과 연결하여 그 중 본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비가시적 존재인 후각에 대한 특징과 공감각적인 측면, 그리고 본인의 후각적 자극으로 인한 감성과 정서가 표출된 과정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다. 본인에게 향의 근원적 의미로 소개가 된 컵과, 향기로서 각인된 유동적인 식물이미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2장에서는 조형적 특징으로서 판에서 표현한 추상적 표현과 프레스기에 의한 수작업으로서의 판화적인 요소와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는 디지털환경에의 작업이 결합되어 제작되어지는 본인의 조형적 특징과 기법적 특징을 논의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인지적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구할 것이다. 대상을 변형시키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감성과 관념에 따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표현한 화가를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하며, 또한 본인의 향기로부터 기인한 감정을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엠보싱 판화 제판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또한 향을 형상화 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각적인 접근으로 촉각에 기인한 드로잉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비가시적 존재를 가시화 하여 표현하는 것은 현대미술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표현방법은 작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눈으로 감지할 수 없기에 더 흥미롭고 많은 추측과 다양성,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부분을 조형화 하게 된 배경과 조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 본 론

1. 오감(五感)에 의한 정서와 감성의 표출

1) 비가시적(非可視的) 존재로서의 후각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감각(感覺, sensation)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거나 개인의 인지 과정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감각은 대표적으로 시각(視覺), 청각(聽覺), 후각(嗅覺), 미각(味覺), 촉각(觸覺)이라는 오감(五感, five senses)에 의해 나타나고 발달된다. 오감은 각각의 감각수용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포함하고 그 외에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간은 주변 의 모든 환경을 인지하고 행동한다. 여기서 감각으로부터 받아들인 자료가 정신으로 올라가 인식의 재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지각(知覺, perception)이 된다.¹⁾ 지각은 감각을 포함하여 주의, 의식, 형태재인 및 기억 등 의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²⁾

그 중에서 후각은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과 함께 비가시적(非可視的)인 존재이면서도 오감 가운데에 후각으로 의식이 인식되기 이전에 감정 반응을 먼저 일으키는 원시적인 감각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활동인 호흡에 의해 유발되는 감각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단 하나의 감각이기 때문이다.³⁾ 또한 후각신경은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변연계(limbic system)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정서적인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실

1)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3」, 휴머니스트, 2004, p.239

2) 이정모 외 16명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 p.43

3) 마틴 린드스트롬, 「오감브랜딩」,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pp.51-52

제로 후각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러한 후각적 특징은 냄새를 통해 예전에 비슷한 향을 통한 특정 기억, 또는 상상의 이미지 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특정한 향(香)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으며, 기억된 냄새를 통해 학습 하게 되거나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직 시각이 채 발달되지 않은 갓난아기들은 냄새로 엄마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며, 현대인들이 신경의 진정이나 스트레스의 완화를 목적으로 향기요법(aroma therapy)과 같은 치료를 받기도 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감각들은 단지 후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소리에서 색을 느낄 수도 있고 냄새를 맡고 색을 떠올릴 수도 있으며 색을 보고 특정한 냄새를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적인 부분과 연결되는데 “신경계의 모든 부분은 서로 결합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어느 한부분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반응할 수 없다”고 지적한 신경생리학자 쉐링톤(Sherrington, 1857~1952)의 말은 이를 뒷받침 한다.⁴⁾ 이러한 공감각의 연상 작용 또한 인간의 오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오감의 감성은 우리 내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하게 된다.

후각적 공감각의 예로 1915년까지 미래파화가로도 활동한 이탈리아 화가 카를로 카라(Carlo Carra, 1881~1966)는 <음향, 소음, 냄새의 회화>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여 소음과 냄새를 포괄하는 총체회화(Total painting)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침묵은 정태적이고 음향, 소음, 냄새는 역동적이다. 음향, 소음, 냄새는 진동의 상이한 형태와 강도와 다르지 않다.” 라고 하였다.⁵⁾ 하나의 자극을 동시에 둘 이상의 감각으로 느끼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4) 문영애, 「재즈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공감각적 색채와 비례에 의한 복식조형」,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9

5)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편」, 휴머니스트, 2008, p.168

는 착란으로 간주되나 예술에서는 이 착란이 외려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

이에 본인은 후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감정과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다차원(多次元)적인 경험영역으로서 매개체가 되는 후각에 주목하게 되었고 향기나 온기(溫氣)와 같은 흔적이 내재된 것들에 대해 많은 여운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후각에 의한 감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는 연상되었던 색, 단어, 기억, 상상속의 이미지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감안해 작품을 진행하였지만 오감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인이 가장 큰 요소로 영향을 받은 것이 후각을 통한 향기였기 때문에 작품의 형성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그 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기억 속에 저장된 특정 향기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이렇듯 향기,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체취(體臭), 향기에 내재된 온기, 음식의 냄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향수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로 오감 중에서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각인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렇게 감각으로서 인지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더 신비롭고 많은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 생각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이론적으로 비가시적인 것의 시각화에 대한 고찰의 기록이나 예술작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가령 중세예술이 가시적인 것을 넘어 비가시적 세계를 드러내려 했다면, 현대 회화 역시 가시적인 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 하려 하였다. 19세기에 카메라가 발명됨으로써 세계를 재현할 의무를 사진이 떠맡게 되면서 회화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우고 보이지 않는 근원적 존재를 현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파울클레 (Paul

Klee, 1879~1940)의 말대로 “현대 회화는 가시적인 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 한다.”⁶⁾ 고 하였다. 파울클레 또한 음악적 기법을 회화적 언어로 표현한 화가이다. 음악 역시 청각에 의해 사람에게 소리로 전달되듯 그 리듬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조형적 언어로 가시화 된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는 “봄(vision)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하는 일이요, 회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가시적인 채로 있는 것을 가시적이게 하는 작업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무엇을 본다 함은 우리의 신체 속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이다.⁷⁾

시각은 눈의 망막에 들어온 정보만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해석하여 외관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머지 후각을 포함한 비가시적인 감각은 눈으로 바로 볼 수 없기에 좀 더 다양한 추측과 상상을 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동반되는 감각을 적극적으로 더 받아들여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해석을 하게 되었다.

2) 후각적 자극으로 인한 기억과 정서의 표출

인간은 감각의 한 수용 세계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직접 그 감각 계통에 따르는 반응 외에 다른 감각 계통에 따르게 되는 감성 반응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⁸⁾ 예를 들어 오르간 음악은 주로 교회에서 연주되는데 이 음악은 종교와 관련된 감정을 이끌어낸다. 또한 음악에서 긴장과 그것의 해소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파악된다. 슬픔을 표현한 음악을

6)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고전예술편」, 휴머니스트, 2008, p.219

7)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364

8) E.H 고프브리치, <예술과 환영>, 열화당, 1992, p.400

들으면서 우리는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이끌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다르고 언제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음악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은 표현된 무언가를 인지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⁹⁾ 이렇듯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가는 감각이 다른 감각과의 연결고리로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으로 파고들어와 우리의 내면 영혼에 감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향을 맡았을 때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이 떠오르는 현상도 후각의 자극으로 인한 연상 작용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연상 작용으로 감상에 젖거나 특이한 감정을 느껴 본적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법하다. 살아가면서 잊고 살지만 기억은 인간의 뇌 속에 축적되어 들어 있듯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흔적이 되어 남은 것과 같다. 그래서 예전과 비슷한 자극으로 인해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이렇듯 냄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억의 연상 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떠오른 기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려고 했다가 보다 그 기억에 상응하는 감정적 요소에 더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느끼는 기억이 동반된 감성은 본인의 감수성을 자극하게 되며, 이 때의 감수성은 감각의 예민성을 뜻하며, 감각적 반응 뿐 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의 예민도까지 포함하여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킬 때 감수성이 있다고 한다.¹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에 따른 감성 반응은 사람마다 다 똑같이 느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감성은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른 향수를 쓰듯이 향기를 인식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반

9) Ellen Winner 저, 이모영·이재준 역, 「예술심리학」, 학지사, 2004, pp.306-307

10) 두산세계백과EnCyber/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

응을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차이나 예민도, 오랜 경험을 통해 훈련된 향에 대한 기억, 취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는 한국 사람들이 냄새를 인지했을 때는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로 받아들여 입맛을 다시게 될 수도 있지만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들은 역겨운 냄새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처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도 매우 다르다.

외부의 감각 자극에 의한 감성은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개인적인 정서(情緒)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인간의 인지과정이 수행되는 동안에 정서의 개입은 자동적이며 필수적이라고 한다.¹¹⁾

어렸을 때부터 인지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의 정보가 되어 내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후각적 자극으로 인해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도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내면의 흔적이 표출되는 것과 같다. 이런 기억과 감정들은 무의식속에 잠재해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창조적인 과정으로서 표출되기도 한다. 본인에게 있어서 후각을 이미지화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본인의 정서의 표출이기도 하다. 본인은 그 정서의 표출을 조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정서는 정신적, 감각적 측면에서의 여유와 풍요를 본인에게 경험하게 한다. 일상 속의 삶에서 느끼는 피로와 자신의 내면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되기도 전에 빠르게 바뀌어가는 삶 속에서 감각을 민감하게 다듬고 모든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물질이 아닌 하나의 정서적 교감과 소통으로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는 것에서 어떠한 미적 감흥을 경험하는 것 또한 정서적 감흥이다. 그 정서적 감흥 속에는 단순히 하나의 느낌이 아닌 즐거움, 슬픔, 감

11) 이정모 외 16명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 p.47

동, 화남, 장엄함, 숭고함 등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 감정을 느끼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후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향에는 코를 찌를 듯 강하게 발산하여 강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과 그냥 코끝을 가볍게 스치는 향, 은근히 베어 나오는 향, 악취, 향기로운 꽃향기 등 인간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 이런 향기의 각각 특성이 곧 본인의 주관에 따라 마음속으로 다르게 형상화하게 된다. 본인은 톡 쏘는 듯한 강한 향을 접했을 때 뽀족한 형태와 함께 아무것도 섞여있지 않은 강렬한 원색이 연상되면서도 그 때의 주변 환경에 의해 부드러움이라는 단어도 함께 연상되었다. 감정적으로는 어떤 신경질적인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내면 감정을 마음속으로 형상화 해보는 것은 조형적으로 많은 참고가 되었다. 본인은 향기로 인한 정서의 표출을 어둡고 기괴하게 이미지화하려고 했다가보다 주로 기분 좋은 향이나 즐겁고 잔잔한 느낌에 더 많은 감흥을 받게 되었다. 악취나 기분이 불쾌해 지는 향내보다는 주로 아름다운 향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특정한 것에 기인한 정서적 각성이 강할수록 그에 의한 기억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 본인에게도 특정 기억의 표상이 향기에 의해 더 강하게 느껴졌다면 그 향기에 대해 느끼는 감성과 정서적 각성이 더 강하게 내면에 남아있을 것이다.

3) 향의 근원적 의미로서의 껍과 식물이미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몸에 뿌리는 향수와 사람의 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체취는 그 근원을 살펴보면 자연적 현상이거나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 향수를 추출(抽出)하기 위해 식물을 채집하게 되고 식물을 특수한 과정을 통해 압착하거나 증류의 과정을 통해 에센스(향유)를 남기

게 된다. 이 식물의 진액은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체취를 가지고 있듯이 그 식물이 가졌던 고유의 자아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컵은 왜곡되기 이전의 모습에서 자신만의 고유의 자아를 가진 컵이다. 즉, 향을 지각하게 되는 최초의 사물이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보게 되는 밥상에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들도 각각 저마다 냄새를 풍긴다. 그 음식들의 최초 근원은 자연일 것이다. 그런데 음식에서 풍기는 맛있는 향기, 꽃에서 풍기는 향내와 같은 기분 좋은 향기들도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 악취로 변할 수 있다. 그 악취에서도 저마다 변형된 성질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그 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것을 연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컵은 도구로서의 측면으로 봤을 때 향기를 담는 용기이다. 이 용기도 모양에 따라 담겨지는 내용물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런 도구로서의 측면도 포함하지만 컵 외관에 보이는 기하학적이거나, 형태가 있는 식물 이미지를 그 컵에 각인된 향기의 조형적인 형태로 인식하였다. 컵 속에 왜곡되는 이미지는 작업 과정에서 컵의 표면에 새겨져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변형 시킨 것으로 다시 재구성 되었다.

컵 표면의 이미지는 향기와 컵이 가진 온기도 포함한다. 여기서 컵의 온기는 마치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이다. 마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취와 온기를 컵이라는 사물에 투영(投影)시킨 것과 비슷하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파트리크 쉐스킨트(Patrick Suskind, 1949~)의 향수라는 책에는 가상의 인물이기는 하나 주인공이 특정 향기를 가진 사람들의 몸의 체취를 모아 향수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 주인공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신은 아무 체취를 가지지 않은 존재로 타인의 몸의 체취를 통해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물과 같이 느껴졌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장미잎의 진액을 추출하고 나서 장미의 영혼이라고 표현 했듯이 본인에게 컵은 향과 온기를 가지고 있는 향의 근원적 의미로서 컵이 되겠다.

어렸을 적에 손톱에 봉숭아를 물들여 본 기억이 있다. 그때 돌에 으깨어진 봉숭아 꽃잎의 진액에서는 강한 봉숭아 식물의 향내가 나고 손톱에 물들여진 그 진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바래진다. 색도 향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후각을 통한 냄새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에 익숙해져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향내 자체에서도 휘발성(揮發性)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의 수증기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진다. 즉 존재함과 동시에 오래 가지 않아 사라진다. 여기에서 본인은 향에 대한 유동적인 느낌을 인식하였다. 이 유동적(流動的)인 형태를 본인은 자연 현상 또는 생물체의 유기적(有機的) 형태에서 찾게 되었다.

유기적 형태에는 주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동적인 느낌을 주고 직선적인 선의 느낌은 강인하고 뻣뻣한 느낌, 또는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이 점은 형태를 왜곡시킬 때 더 극대화 되어 나타난다. 유기적 형태에서 오는 울동감은 향기가 날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듬감과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이 되기도 하고 고유의 자아를 가진 향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많이 연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향의 근원은 식물의 진액(津液)에서도 느껴진다. 이 진액은 식물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다. 이 진액은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를 마실 때 우려먹는 티백(tea bag)과 같이 물에 스며든 색과 은은한 향취를 통해 존재를 각인시킨다. 마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체취인 후각신분증¹²⁾과 같은 것이다.

이렇듯 본인은 식물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울동적 느낌과 풍기는 향취, 고유의 형태에서 유추되는 그 향의 성질 또는 자아에 대해 내면으로 형상화 해 볼 수 있었고 식물의 진액에서 보이는 향 과 색, 그리고 향기와 온

12)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피트 브론(Piet Vroon)은 사람들을 서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고유의 표지인 체취를 가리켜 '후각신분증'이라 정의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각자 고유의 체취에 향수 같은 인공향을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후각신분증'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기가 내재되어진 컵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환기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2. 후각의 형상화를 위한 조형적 특징

1) 디지털환경에서 왜곡되어진 형태

현대미술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작품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의식적으로 대상을 변형(變形)하여 미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거나 자신만의 창의적 표현으로 시도하기도 한다. 변형(Déformation)은 프랑스어 형(形, Form)에서 나온 말로써 형태의 왜곡(歪曲)을 의미한다.¹³⁾

본인은 후각으로 각인된 향기를 형상화 하기위해 주관적 해석에 따라 왜곡, 변형 하여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컵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왜곡은 향기에 내재된 유동적인 느낌과, 비가시적인 부분을 화면에서 더 극대화 시켜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우연적인 효과 또한 작품에 응용할 수 있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해체(解體), 중첩(重疊), 재결합(再結合)하는 점은 본인의 순간적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에 용이하였다.

이 왜곡의 표현을 통해 향기를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연출하려고 의도하였으며 전체적인 왜곡보다는 어느 특정 부분을 포인트로 설정해 그 부분만을 집중해서 왜곡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왜곡의 과정에서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위해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흐린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이 흐린 느낌은 사진이미지를 디지털 환경으로 가져와 의도한 느낌에 따라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절하여 표

13) 공동집필, 편집부 편, 「현대미술용어사전」, 열화당, 1985, p.19

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의 의도는 화가의 의도에 따라 순수한 시각적 유희를 위해 이미지를 왜곡할 수도 있으며, 독일 르네상스의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1497~1543)이 1533년에 제작한 <대사들>이라는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왜상(anamorphosis)을 통해 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본인은 비가시적 존재를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식하고 이러한 직관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어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무의식적인 향의 느낌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왜곡하였다. 이러한 왜곡은 그 존재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현주의(Expressionism)화가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절규> [도판5]라는 작품에서처럼 작가의 무의식이나 기억이 개입된 심리적 원인이 감정의 표현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표현주의 예술에서는 형태가 왜곡되고 원색 위주의 강렬한 색채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주관의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뭉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앓았던 공황발작이라는 병의 내적인 공포감을 원초적 두려움의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일렁이는 선을 통해 절규를 묘사하였다.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이성적인 창작과정 보다 그것을 넘어 무의식에서 감지되는 형상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의 <기억의 지속> [도판6]이라는 작품에서처럼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미지로 심리적 왜상이 반영되어 왜곡된 형태로 이미지가 표출되었다. 단단해야 할 시계가 마치 녹아내리듯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왜곡의 표현은 왜곡된 형태가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보다 기존의 대상을 그렇게 변형시킨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후각의 시각화를 위한 왜곡의 방법 또한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프린트를 이용한 현대 작가들은 사진을 찍는 과정 자체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키키스미스(Kiki Smith, 1954~)의 동생이기도 한 사진작가 시튼 스미스(Seton Smith, 1955~)는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감각적인 사진으로 인간의 실재적인 지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속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흐릿한 형상과 단색조의 서정적인 색채감은 생경한 화면을 만들고 감상자의 상상을 자극하며 그 사람만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감각적 이미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마다의 기억과 욕망을 자극하여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이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소재는 작가 자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이며 모두 자신이 투영된 관계이다. 장소의 감각, 자연의 상태, 작가의 손의 감각이 한 곳에서 만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한다.[도판7][도판8] 눈을 반쯤 감거나 눈물이 맺힌 듯 몽롱하게 바라보는 세상은 선명함과 뚜렷함에 반대되는 감성적인 느낌을 준다.¹⁴⁾

본인은 완전한 추상의 형태가 아닌 기존의 대상을 가져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변형, 왜곡 하여 나타내었고 이 작업 과정 이 후에 더 진행되는 판 작업은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이 두 부분이 나중에 결합되어 같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반 추상적인 그림과 같이 관념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사물의 형태가 보이기 는 하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듯 왜곡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여 내적 심리를 전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면의 심리나, 대상에 대한 느낌은 개인의 경험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왜곡의 형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후각의 자극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생긴 감성과 그에 따른 내면 정서의 표출에 더 치중하였기 때문에 수치에 의한 기계적인 왜곡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다가보다 감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즉흥적으로 변형

14) 한영혜 글, 「월간 Photobox」, 2009년 11월호, 이미지 파인더, pp. 102-106

하고자 하였다.

예술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표현방법은 자신만의 특수한 미적인 효과를 얻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화가 몽크는 울동하는 선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이 울동적인 선의 흐름을 나무 절단면의 나뭇결에서 발견하여 그 나무의 절단면을 그대로 가져와 판화 기법을 이용하여 찍어내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조형적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기술로 인한 매체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통적인 판화 방법과 현대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판화의 개념도 그만큼 확장되었다. 본인의 작품 진행 방식도 디지털 프린트와 다른 응용된 판화기법의 혼합을 통해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단계는 처음 사진의 이미지로 시작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시키고 프린팅 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본인의 왜곡 형태의 모티브(Motive)는 식물에서 보이는 유기적인 선의 느낌이나, 구체적으로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형상, 그리고 물이 끓을 때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수증기의 형상, 색의 농담, 음악의 리듬 변화, 화산이 폭발할 때 솟구쳐 오르는 형태, 꽃잎을 물에 우려서 남겨진 꽃 즙의 색,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의 표면, 분수대에서 솟구쳐 올라 와서 다시 흘러내리는 물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직선과 곡선의 변화를 통해서도 향기의 강함과 약함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왜곡하기 전인 처음의 단계는 사진이다.[도판9] 사진 이미지는 대표적으로는 컵과 식물이미지를 수집해 놓은 것들이며 그 중 식물이미지는 컵의 표면에 새겨지거나 또는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컵에 각인된 향기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기위한 의도로 왜곡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사진이미지를 프린트

하여 그 위에 드로잉(drawing) 작업을 거친 후 스캔(scan) 하여 다시 디지털 환경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향에 의해 슬프고 아련한 감정이 주로 느껴졌다면 강렬하지 않은 파스텔 톤의 연한 색이나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왜곡의 형태 또한 강하게 뒤틀거나 많이 변형시키기 보다는 잔잔하게 물결치는 듯, 또는 고정된 형태의 표면에서 날아가는 모습과 같이 가벼운 느낌으로 변형시키고자 의도하였다. 또는 특정 색이나 향에 의해 경쾌한 감정과 즐거운 기억이 떠올랐다면 채도가 높은 밝은 색이나 기억 속에 떠오른 구체적 형상을 합성하기도 하여 한 화면 안에 중첩시키거나 함께 왜곡시켜 표현하기도 하였다.

처음 아무것도 왜곡되어지지 않은 원본이미지는 향의 근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을 담는 도구이기도 하며 그 향기가 각인이 되어있는 본연의 자아를 가진 컵이다. 또한 본인의 주관적인 정서가 개입되기 전의 상태이기도 하다.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하는 단계는 향의 표출이면서 동시에 본인의 정서 표출이기도 하다. 본연의 식물이미지가 왜곡으로 파괴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관적인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왜곡은 주로 뒤틀림, 뽀뽀해서 사라질 것만 같은 상태, 컵 속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형태, 뽀족한 형태 등으로 왜곡된다. 물결무늬와 같이 변형된 컵 속의 이미지들은 향기를 통해 떠오른 기억과 상상 속 가상의 이미지가 혼합된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잔잔한 느낌, 조용한 느낌, 신경이 곤두서 있는 느낌 등의 은유적인 정서 표현으로서의 왜곡이다.

컵의 형태는 처음에는 컵 자체의 형태를 왜곡 시켰지만[작품10] 작업이 조금씩 진행된 이 후에는 컵 안에 식물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컵 속의 내용물 만 변형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컵의 색은 하얗게 바래진 것과 같이 만들었고 색을 하얗게 만들어 버린 것은 향 본연의 진액(津液)이 날아가 버린 것, 또는 그 컵이 가지고 있던 온기와 같은 것들이 날아가 버린 상태를 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얗게 바래진 컵도 디지털 환경에서

색을 빼내는 방법으로 변형시켰다.[도판10] 왜곡된 식물이 그 위에 중첩, 결합되는 것은 향기에 의한 복합적인 감정이나 연상되는 다른 것들이 서로 결합되고 내면에서 엉켜있음을 의미한다.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은 포토샵(Photoshop)이며 형태를 왜곡시키기 위한 툴(Tool)은 리퀴파이(Liquify)이다. 이 툴의 특징은 원하는 부분을 직접 그림을 그리듯이 자유롭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화면상에서 보이는 색들을 왜곡과 동시에 바로 섞어버릴 수 있어서 마치 캔버스에서 바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섞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화이지만 회화적인 요소를 잘 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정확한 계산에 의한 왜곡의 법칙을 이용하기보다 본인이 의도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Forward warp tool 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 위해 사용한 툴은 포토샵의 필터(Filter)안에 있는 Distort-diffuse glow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도하고자 한 대로 조절하여 흐리기 강도를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미지를 중첩하는 것은 여러 개의 다른 이미지인 레이어(layer)를 겹쳐서 선명도나 색의 강함과 약함, 앞의 이미지와 다른 색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레이어마다 톤, 색의 변화를 준 것은 앞서 작업한 밑의 이미지도 함께 보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중첩을 통해서 색감의 깊이를 얻을 수 있고 이 깊이감은 컵 속의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디지털 작업을 적극적으로 종이에 프린트하기까지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디지털프린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판화(Etching)나 석판화(Lithography)를 통해 몇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쳤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면이 다소 감소되었고 처음의 왜곡된 형태에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의도했던 유동적인 느낌이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작업된 사진 이미지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디지털 프린트를 적극 이용하게 되었

고 디지털 프린트 외에 사진 감광을 통한 석판화(P.S lithography)기법도 사용하였다.[작품5]

디지털 출력 과정에서는 사용된 종이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한지의 프린팅은 잉크가 종이에 많이 스며들어서 뿌옇거나 흐린 느낌, 몽환적(夢幻的)인 느낌을 많이 주었다. 한지의 두께에 따른 미세한 차이 또한 영향이 있었다. 종이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인쇄지(印畫紙)는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느낌을 주어 이미지의 경계가 선명하게 보였다. 본인이 사용한 종이는 판화지이다. 판화지도 출력 과정을 거친 후에는 잉크가 스며들지만 한지와 인쇄지의 중간 정도이다. 주로 사용한 판화지의 종류는 파브리아노(fabriano), 띠에폴로(tiepolo), 하네물레(hahnemuhle), 섬머셋 엔한스(somerset enhanced) 등이 있다.

이 첫 번째 프린팅 과정을 거친 후 그 위에 다른 판화 기법으로 찍어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찍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이는 배제하고 전체적 작품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뚜렷한 외곽보다 약간의 흐린 느낌을 주고자 하여 두꺼운 판화종이를 선택하였다.

본인은 형태를 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단계가 컵 속에 이입된 감정의 특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여겼고 후각을 가시화 하기위해 새롭게 창조된 이미지로의 재탄생이기도 하다.

2) 후각을 각인시키는 엠보싱(Embossing)

엠보싱은 스탬핑(stamping)의 일종으로 요철(凹凸)사이에 종이나 직물, 가죽, 금속판 따위를 끼운 뒤 그 뒷면에서 강하게 압력을 주어 여러 가지 모양의 형상을 찍어내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작가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응용된 판화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 전달 효과와 함께 촉각적(觸覺的) 재질감도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엠보싱을 종이에 찍어낼 때 판의 두께와 압력에 따라 약한 재질감 외에도 부조(浮彫, relief)적인 느낌의 입체적이고 강한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형적 실험이 가능하였다.

요철이 있는 판이나 또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판을 종이 위에 찍어내면 특정한 질감을 주기도 하고 정확한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빛에 의한 음영을 통해 판에서 만들어진 음각을 통한 형상이 그대로 보이게 된다. 이런 과정은 프레스기라는 기계를 통해 정교하게 찍혀 나오게 되고 디지털이라는 작업 위에 수동적인 작업이 결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매끈한 표면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한 화면 안에 서로 다른 질감의 차이를 보이고 디지털 작업과도 상호보완적이다.

본인에게 있어서 앞의 과정이 구체적인 형태와 사물이 나타나는 과정이라면 엠보싱을 찍는 과정은 향에 대한 형상을 추상적인 모양으로 찍어내서 구체적 형상과 추상적인 형상이 한 화면에 결합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매끈한 종이에 무언가를 가두거나 또는 각인시킨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각인은 보이지 않는 향기를 추상적으로 형상화 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의 감정에 대한 각인, 기억의 각인이라 말할 수 있겠다. 각인이란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됨을 뜻하므로 그때의 향기에 대한 기억이다. 즉, 향기는 색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후각으로서 인지되기 때문에 음영과 질감을 통한 흔적을 남기는 과정은 빛을 통하여 보일 듯 말 듯 한 경계에서 향을 형상화하기에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얗게 바랜 컵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엠보싱은 색이 들어가지 않은 컵의 형상만을 종이에 각인시킨다.[작품9]

작품의 구도나 공간을 구성할 때에도 엠보싱을 사용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선명하거나 강렬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여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주변의 변화를 통해 중심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하였

다. 그래서 중심의 컵 이미지를 제외한 배경에 색을 넣거나 부분적으로 엠보싱을 통한 질감의 차이를 주었다. [작품4][작품5][작품6]

색을 통한 변화를 줄 때는 모노타이프(monotype)기법을 이용하였으며 필름지에 스펀지를 이용한 톤의 변화를 주어 배경에 공간감을 더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스펀지의 사용은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는데 조형적으로도 보완이 되었다. 톤 변화의 차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잉크를 두껍게 올려 종이 표면과 잉크의 두께차이를 주고자 하였다.

본인은 디지털 작업을 거친 작업물 위에 다른 판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특히 판화지 위에 디지털프린트를 하게 되면 종이에 잉크가 일률적으로 스며든다.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는 화면상으로 보았을 때 강함과 약함이 눈으로 보였지만 프린트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평면적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양한 텍스처(Texture)와 색을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오목판법(Intaglio)과 볼록판법(relief)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콜라그래프(collagraphy)판을 제작하여 찍어내거나 드라이포인트(drypoint)와 같은 판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졌다. 엠보싱은 그런 이질감을 보완해주면서도 내용적인 측면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적합한 작업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엠보싱을 위한 제판을 하는 방법에서 본인이 사용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째로는 리놀륨 판이나 두꺼운 PVC(염화비닐수지)판[도판1]에 조각칼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향의 이미지를 홈을 내어 표현하였다.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둥글고 조금 굽은 칼을 사용하였고 강한 자극을 주었던 향을 표현할 때는 뾰족하고 가는 칼을 사용하였다. 작품에 따라서는 매끈하게 파내기보다 약간의 진동을 주어 울퉁불퉁하게 홈을 내기도 하였다.

둘째로 다양한 요철이 있는 철망, 또는 벽지를 의도하고자 한 모양으로 잘라서 프레스기로 찍는 과정을 거쳐 엠보싱만을 남기는 것이다. 철망은 자르기 용이한 두께의 비교적 얇은 판을 선택하였고 여러 번 겹쳐서 찍기에

도 편리했다. 직접 제작한 판에 비해 일률적인 무늬였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이 조금 덜 하였다.

세 번째로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사용하였다. 모델링 페이스트는 앞의 방법보다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다. 모델링 페이스트를 얇은 판에 바르고 철판에 있는 무늬와 같이 다른 질감이 있는 물체를 가져와 마르게 전에 찍거나[도판3]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가늘게 뽑아내서 선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선의 표현에서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어떠한 강도로 짜느냐에 따라서 선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었다.[도판2] 이렇게 제판을 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종이에 찍어내면 또 다른 엠보싱의 표현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네 번째로는 판화기법 중에 에칭(Etching)을 할 때 주로 쓰는 동판이나 아연판에 니들로 그려서 부식을 시켜 만든 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부식의 시간이나 니들의 모양, 니들로 그린 선의 두께에 따라 다양한 판을 만들 수 있다. 판의 표면에 하드그라운드(Hard ground)라는 방식제(防蝕劑)를 바르고 건조시킨 뒤 선이나 면을 그리고 부식을 시킨다. 이 때 부식시간을 많이 주면 깊은 엠보싱을 얻을 수 있었고 부식시간을 짧게 해서 여린 느낌의 엠보싱을 만들 수 있었다.

즉 제판에 사용된 재료에는 철판, 벽지, 모델링페이스트, 동판이나 아연판에 부식을 해서 만든 판, 조각칼로 파낸 홈이 있는 판 정도가 있겠다. 이러한 판들은[도판1][도판2][도판3][도판4] 을 참고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한 판 위에 잉킹(inking)을 하여 찍기도 하였다. 잉킹을 할 때 사용된 잉크의 종류에는 일반 판화잉크를 포함하여 투명 메디움(Medium)이 있다. 그 중 색을 올리기보다 투명 메디움을 많이 사용하였다. 투명하다는 특징 때문에 앞의 디지털 작업에서 레이어의 중첩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었고 엠보싱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디지털 작업의 색과 형태가 많이 가려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욱 선

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판화잉크를 판면에 잉킹 하여 같이 사용한 경우는 엠보싱과 색의 표현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엠보싱 표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을 빛의 음영을 통해 보일 듯 말 듯 표현하거나 종이에 질감으로 각인시키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를 잘 살려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앞서 진행 되었던 디지털 환경에서의 왜곡된 이미지들이 출력 되었을 때 매끈한 종이의 표면에 미세한 질감의 변화를 주어 조형적으로 상호 보완되는 과정이 되었다.

3) 촉각적 드로잉

촉각(觸覺)은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촉각은 피부에 작용하는 접촉감각, 압각, 마찰감각, 중량감 및 충돌감각 등의 역학적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이며, 이를 기초로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함, 부피감, 뻣뻣함, 탄성력, 시원함 등의 인간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촉각, 질감의 감성표현을 촉감이라고 한다.¹⁵⁾ 촉감도 예술 작품에서는 감성을 전달하는 감성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의 엠보싱 작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감도 향에 대한 본인의 감성전달의 의미가 있다. 엠보싱의 과정을 거치면 손으로 표면을 만졌을 때 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 작업 위에 콘테(conté)를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였다. 콘테를 사용한 이유는 연필보다는 무르고 농담(濃淡)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로잉을 할 때 주로 손으로 문질러서 번지는 느낌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전 작업의 질감이 색이나 톤이 올라가게 됨으로 해서 더 부각 되었다. 즉 판의 요철(凹凸)과 같은 표면이 종이 위에 찍혀 있어서 마치 볼록판위에 잉크를 올릴 때와 흡사하게 들어간 부분을 제외한 위로 튀어나온 부분에

15) Lawrence K, 「Pain and Touch, Academic Press」, 1996

색이 묻어서 질감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다.

콘테를 손으로 문질러 표현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색의 농담변화인 그라데이션(Gradation)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으로서의 농담 변화는 향기가 연기처럼 날아가서 사라지는 시각적 표현방법으로 하기에 적합하였고, 향기가 사물에 흘러내리거나 스며드는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손으로 문질러 스며드는 느낌을 의도한 것은 식물의 향기를 가지고 있던 진액이 사물에 스며드는 것을 촉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부분적으로 손으로 문질러 표현할 때 강도에 따라 번짐이 달라져서 부드러운 느낌을 좀 더 섬세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동식물을 직접 그려 넣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공간의 흐름을 구성하거나 향기의 존재에 대한 보조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이다. 동식물은 주로 날아다니는 새나 나비와 같은 생물을 그렸다. 이러한 보조적인 장치의 동식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향기에 대한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또한 향을 감지한 하나의 생물로 마치 본인으로서 감정이입이 된 생물인 것이다.

조형적으로는 화면 안에서 하나의 포인트로서 시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엠보싱의 작업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여 한 화면에서 촉각적인 시각을 느끼게 한다.

3. 작품분석



[작품 1] a cup II, 80x55cm, digitalprint, embossing on paper,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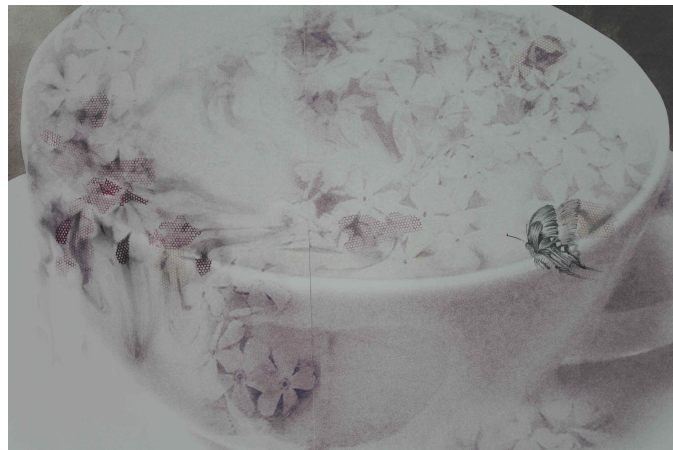
[작품 2] a cup VI, 120x100cm, digitalprint, collagraphy on paper,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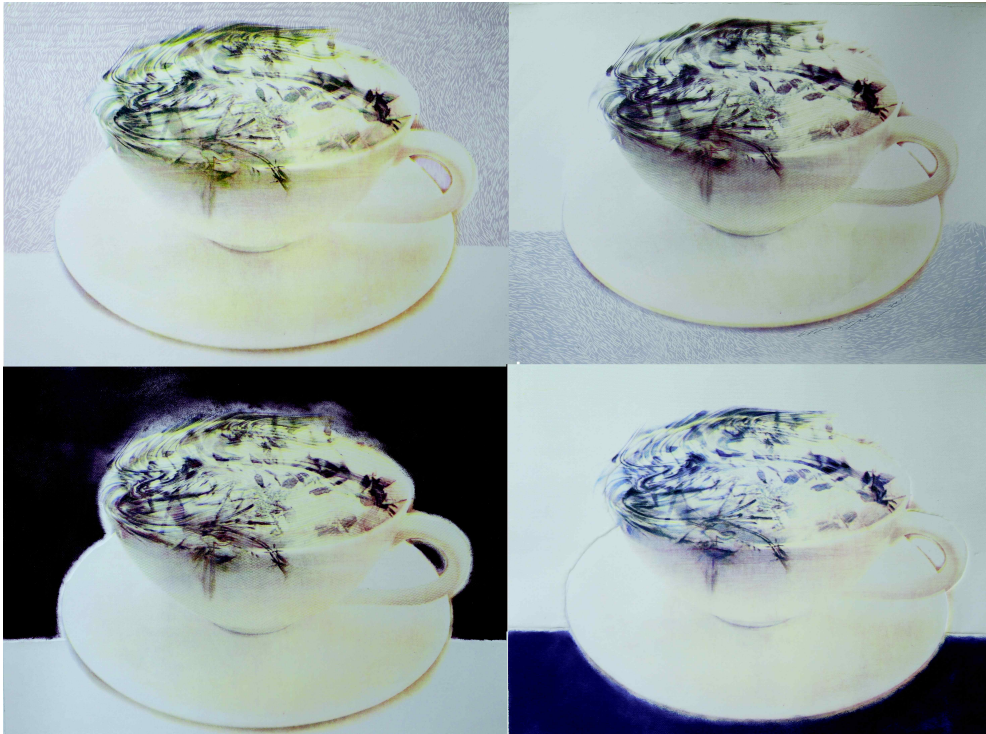
[작품3] Scent story, 21x29.7cm, digitalprint, embossing on paper,
2012

[작품1][작품2]는 컵이라는 사물을 빌려와 담겨져 있는 향기의 이미지를 컵 속에 왜곡시켜 표현하는 계기가 된 작품이었다. 컵의 표면에 있는 식물 이미지를 디지털환경에서 왜곡시켜 컵 안의 공간으로 가져와 재구성 하였다. 컵 속 표면에는 흘러넘칠 것 같으면서도 표면의 가장자리는 식물이 향기처럼 형상화되기 전의 모습처럼 일렁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도판 1]에서 보이는 철망을 이용하여 엠보싱을 찍었고 흐려져 있는 컵을 조금 더 촉각적으로 부각 시키기 위해 얇은 두께의 철망을 컵 형태로 잘라 투명 매디움으로 잉킹 후 한번 더 찍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작품1]의 과정을 거친 후 [작품2]를 하게 되었는데 대칭적으로 보이는 컵의 형상 속에는 밖으로 비취 보이기도 하고 밖으로 나와 대칭적으로 찍혀있기도 한 식물이미지가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간의 구성과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다. 밀의 컵 형상은 균일한 요철이 있는 철망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서 잉킹 후 찍어냈다. 반면 위의 컵의 이미지에는 디지털 작업 후 그 위에 추가적인 다른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밀의 대칭적으로 되어있는 컵의 형상과 질감의 차이를 주어서 같은 화면에서 다른 느낌을 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밀의 컵 이미지는 원래 향기가 각인되어 있었던 사물을 색을 통해서만 표현하여 구체적 형상과 대비해서 내면적으로 형상화한 추상적인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작품3]은 [작품 1]과[작품 2]와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쳤다. 전의 작업에서는 컵의 표면에 있는 냄새가 각인된 식물을 컵 속에 재구성 하였지만 [작품 3]은 특정한 향이 강한 꽃의 이미지를 그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변형하였다. 붉은 색과 위로 솟아있는 식물이미지는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한 향을 형상화 한 것이다. 두꺼운 PVC판에 얇은 조각칼을 이용해서 뾰족한 흠을 낸 뒤 디지털 프린팅을 한 종이 위에 한번 더 엠보싱을 찍었다. 미세하게 뾰족한 느낌의 엠보싱들은 변형된 형태를 좀 더 보완하고 있다.



[작품 4] Overflow..., 100x125cm, digitalprint, monotype, embossing,
pencil on paper, 2010



[작품5] The scent of drinking, 각각 56x76.5cm, P.S lithography,
linocut, embossing on paper, 2011



[작품 6] 조용한 향기, 110x56cm, digitalprint, monotype, embossing
on paper, 2011

[작품 4][작품 5][작품 6]은 앞의 [작품 1][작품 2][작품 3]을 하였을 때 컵의 이미지가 다소 약해보이는 점을 보완하고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자 하여 공간을 분할하고 배경에 변화를 주었다. [작품 4]는 컵과 컵 속 식물 이미지가 향이 다 날아가고 색이 바래서 색을 디지털 작업에서 빼내 무채색으로 변형하였다. 그래서 사물 자체로 보았을 때 원래의 작품 분위기가 외곽이 흐려서 주변의 변화를 통해 컵 이미지를 부각 되게 하고자 하였다. [작품 4]의 배경은 필름지를 이용해 그 위에 스펀지에 판화잉크를 묻혀 두드리는 방식으로 톤의 변화를 주었다. 일종의 모노타입과 같은 방식이다. 톤 변화를 준 후 프레스기를 이용해 찍어내고 나머지 밑의 공간 여백에는 철망을 이용하여 엠보싱을 주어 배경과 밑의 공간 구분을 색과 질감을 차이를 통해 주고자 하였다. [작품 4]의 부분 확대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철망을 모양을 내서 잘라낸 작은 판들을 이용하여 색을 넣어 잉킹 후 부분적으로 찍어내어 컵 속 이미지들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고자 하였으며 흘러넘치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콘테를 이용한 번지는 느낌의 표현도 더 하였다. 그리고 컵으로 날아오는 나비 이미지는 연필로 드로잉 하였으며, 보조적인 장치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흐려져 있는 분위기에 포인트를 주고자 하였고 간접적으로 향기를 형상화 한 것이기도 하다.

[작품 5]는 디지털 작업을 한 후 그것을 그대로 출력하지 않고 감광 기법을 이용한 석판화로서, 제판 과정 후 잉킹 과정에서 잉크의 색을 각각 달리하여 찍었다. 같은 이미지이지만 색이 다른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어 그 후 다른 판화 기법을 혼용하였다. 각각 미세한 다른 엠보싱을 주어 다른 질감을 주었고 리노컷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찍었다. 같은 컵이지만 거기에서 느꼈던 각각의 다른 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질감과 공간 구성의 변화를 통해 네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되었을 때 리듬을 통해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 6]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쳤지만 판화지 대신 캔버스의 질감과 비슷

한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를 하였고 밑의 공간에 물감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배경에서의 텍스처 차이를 주고자 하였다. 위의 공간에는 전체적으로 투명 매디움으로 잉킹한 철망을 이용한 엠보싱을 주었다. 컵의 이미지는 디지털 과정에서 왜곡되었고 앞의 작업과정을 마친 후 컵 속에 있는 식물 이미지 같기도 한 추상적인 형태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왜곡은 큰 변화보다 잔잔하고 가볍게 스치는 향을 표현하기 위해 조금은 정적이고 표면위로 일렁이는 듯한 모습으로 왜곡하였다.



[작품 7] Leave the scent, 47x70cm, digitalprint, etching,
embossing, conte on paper, 2012



[작품 8] Untitled, 65x98cm, digitalprint, etching, embossing,
conte on paper, 2012

[작품 7][작품 8]은 컵의 이미지를 벗어나 있다. [작품 7]은 우리 몸의 체취나 흔적을 담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다른 사물로서의 육조로 그 속에 식물이미지를 합성하여 재구성 되었다. 육조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의 이미지들은 싱그러운 비누 향과 몸에서 빠져나온 몸의 체취를 상징하기도 한다. 육조 위에 얹어있는 보조적인 장치로서의 새는 스텐실기법으로 찍었으며 육조에 시선을 잡아주기 위해 전체적인 작품의 색에 비해 조금은 강한 색을 사용하였다. 육조의 형태에 부분적인 엠보싱을 주었으며 배경의 밑의 부분에 아연판으로 부식된 판을 이용하여 미세한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아연판의 부식은 육실에서 볼 수 있는 타일의 모양을 형상화하기 위해 니들로 직선을 그어 사각형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부식하였다. 육조 속의 변형된 식물이미지 위에 콘테로 드로잉을 하여 손을 이용해 문질러서 부분적으로 번지는 효과를 통해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 8]은 컵이나 다른 사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우물과 비슷한 형태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형상과 같이 왜곡하여 그 속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감정이 이입된 소녀의 이미지를 통해 향기를 형상화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후각의 자극으로 인한 향기의 느낌을 시각화 하였다기보다 어떤 특정한 작품을 보고 거기에서 오는 후각적인 공감각적 심상을 느끼게 되어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었다. 여러 이미지들을 디지털 환경으로 불러와 형태를 왜곡시키고 다양한 이미지를 중첩, 결합 하였고 동심원으로 원을 그리는 듯한 형상을 PVC판을 통해 조각칼로 파서 만든 다음 디지털프린트 위에 엠보싱으로서 표현했다. 사람 이미지 밑에 뽀족한 느낌의 엠보싱 역시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그 위에 콘테로 드로잉하여 엠보싱의 느낌을 더 살리고자 하였다.



[작품 9] Floral cup III, 78x100cm, 종이 위에 엠보싱, 콘테, 2012

[작품 9]는 디지털 작업과정을 하지 않고 엠보싱과 드로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이다. 향기가 각인되어 있는 사물을 엠보싱으로만 찍어내어 종이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작품을 하기 전 같은 이미지로 동판의 부식을 이용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에서 컵 속 이미지 부분만을 동판으로 부식하였다. 부식이라는 개념 또한 니들로 새겨진 부분이 산에 부식되어 날아가는 과정과 같기 때문이다. 그 작업과의 연작으로 하여 이미지의 외곽을 그대로 가져와 하게 된 작품이다. 동판의 부식에 의한 작업은 보다 강렬한 느낌을 주었지만 좀 더 가벼운 향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작업 방법을 통해 이 작품을 하게 되었다.

컵 위쪽의 왜곡된 이미지는 컵 모양으로 제작한 하드보드지의 표면 위에 모델링페이스트를 다른 기구를 이용하여 선으로 표현 한 후에 굳혀서 프레스기로 찍는 과정을 거쳤다. 컵 부분은 또 다른 질감의 표현을 동시에 주고자 하여 컵의 형태만 엠보싱을 줄 수 있는 다른 판을 만들어 동시에 찍어냈다. 이 방법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를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부조적인 효과를 통해 은근히 드러나기 때문에 작업 과정 중에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하게 되었다. 판화로 찍어내는 과정을 거친 후 색이 있는 콘테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번지는 느낌을 주면서 색을 표현 했다. 강한 향의 표현이라기보다 가볍게 스쳤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에 대한 표현에 더 가깝다.



[작품 10] a cup III, 80x55.7cm, digitalprint, collagraphy
on paper, 2010

[작품 10]은 제일 처음 컵 이미지로 작업을 한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는 아직 컵의 표면에 있는 향기가 각인된 이미지가 컵 속의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각인 된 상태 그대로의 사물로 표현되어 있다. 원래의 컵 이미지에서 외관의 식물이미지들은 파랗게 색이 변해있고 컵을 받치고 있는 접시의 형태는 늘어나 녹아버릴 것 같이 왜곡시켰다. 향기에 대한 표현이 아직 완전히 표출되기 전의 상태와 같다. 디지털 작업을 통해 형태를 왜곡시켰으며 컵 표면의 미세한 질감 변화를 주고자 하여 미세한 요철과 같이 있는 벽지를 컵의 형태로 잘라 투명 매디움으로 잉킹 후 디지털 작업 위에 찍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로 앞의 작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단이 되었다.

Ⅲ. 결 론

향기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로의 조형적 표현은 감성에 따라 제 각기 표현되어 졌다. 그것은 종이위에 엠보싱으로서 찍혀서 나타나기도 했고 은은한 색과 형태의 왜곡에 따라 서로 이미지들이 섞이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즉흥적으로 변형되기도 하였고 또 어떤 것들은 내면의 정서를 식물의 변형을 통해 좀 더 극대화 되기도 하였으며 향기에 직접 성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것은 본인의 내면 정서가 각인되거나 이입되어 있는 것 들이 다른 것에 투영되어 대신 표출 된 것들이다. 날아가거나 서로 섞여 넘치거나 소용돌이 치고 있는 향기들은 구체적 형태와 추상적인 형태의 결합으로 익숙한 사물이지만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상의 이미지가 되었다. 연구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지각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감성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작품의 과정들을 돌아보았을 때 날아가거나 향이 뿜어져 있는 형상을 많이 의식하게 되어 강하게 표현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약하게 보였던 부분도 있었고 다양한 왜곡을 통해 좀 더 다채로운 향기의 표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향을 표현하기에는 이미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서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서는 컵의 형태를 벗어나서 좀 더 확장된 범위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컵의 형태를 가져와 작업이 이루어진 점과는 반대로 왜곡으로 인해 추상적인 느낌의 이미지들로 구체적 형상을 만들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엠보싱으로 인한 향기의 시각화는 제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었고 2012년 석사 청구전을 준비하면서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 판법이였다. 형태의 왜곡과 함께 제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의 작업에서 이 방법을 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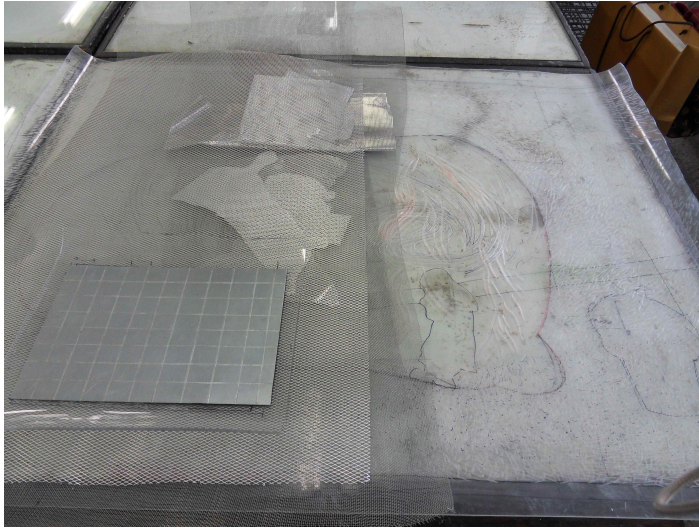
심도 있게 연구해보고 발전 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소재의 다양성과 왜곡의 형태에 대한 다양성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비가시적인 존재를 조형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분명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신비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었으며 작품을 하게 되는 하나의 재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향이 되었든 이러한 작은 감각적 인식의 하나가 개인의 내면에도 많은 정서적 감흥을 주게 되어 보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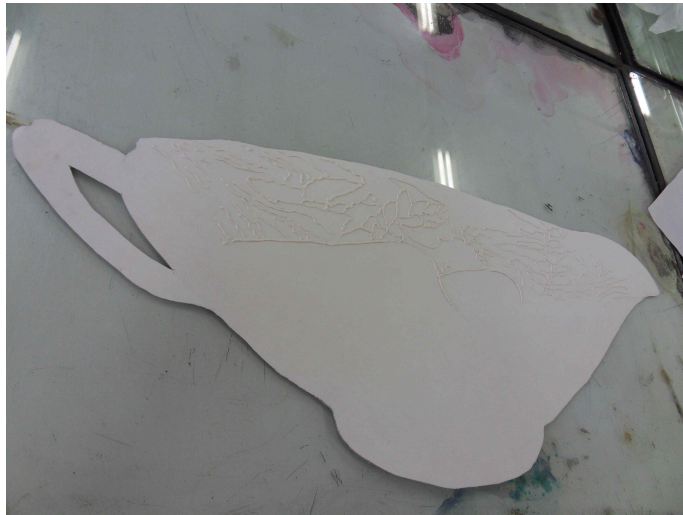
본 논문제작은 본인의 작품의 형성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조형적인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해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보이는 것 외의 또 다른 공감각적인 정서적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표현의 발전적인 시도를 계속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도판

엠보싱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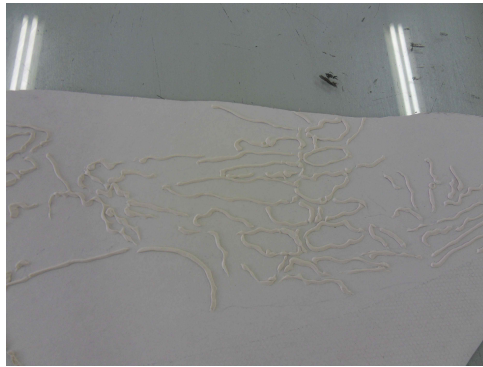
[도판1] 철망, PVC(염화비닐수지), 아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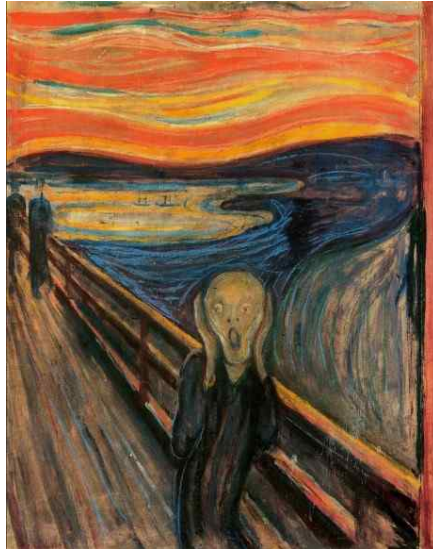
[도판2] 하드보드지와 모델링페이스트를 이용한 판



[도판3] 모델링 페이스트와 철망을 이용한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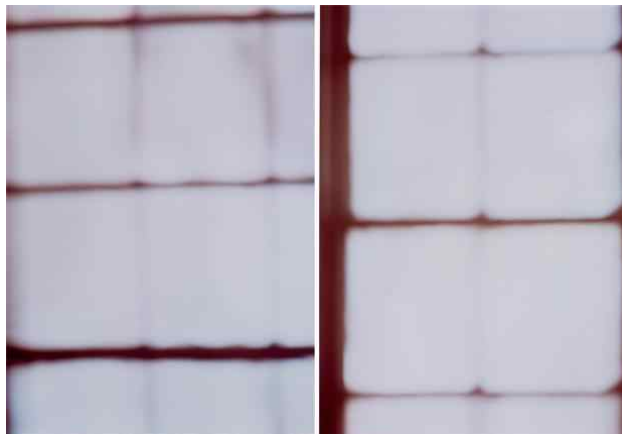
[도판4]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해
선을 표현한 확대 모습



[도판5]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
<절규, The Scream>, 마분지에 유채물감,
템페라, 파스텔, 91×73.5cm, 1893



[도판6]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 ~ 1989),
<기억의 지속, The Persistence of Memory>,
캔버스에 유화, 24.1cmx33cm, 1931



[도판7] 시튼스미스(Seton Smith, 1955~)
<Windows>, Cibachrome on Plexiglass,
182x123cm, 1997



[도판8] 시튼스미스(Seton Smith, 1955~)
<Heart pitcher>, Cibachrome on Plexiglass,
180x122cm, 1997



[도판9]



[도판10]

참고문헌

- 공동집필. 편집부 편. (1985). 현대미술 용어사전. 열화당.
- 마틴 린드스트롬. 최원식 역. (2006). 오감브랜딩. 랜덤하우스코리아.
- 문영애. (1999). 재즈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공감각적 색채와 비례에 의한
복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에른스트 고프리치(E. H. GOMBRICH). (1992). 예술과 환영. 열화당.
- 엘렌 위너(Ellen Winner 저). 이모영·이재준 역. (2004). 예술심리학. 학지사.
- 오병남. (2003).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미지파인더 저. (2009.11). Photobox포토박스. 이미지파인더(월간지).
- 이정모 외 16명. (1999). 인지심리학. 학지사.
- 진중권. (2008).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고전예술편. 휴머니스트.
- 진중권. (2008).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편. 휴머니스트.
- 진중권. (2004). 미학오디세이3. 휴머니스트.
- 크루거로렌스(Lawrence K). (1996). Pain and Touch. Academic Press.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of invisible presence

by olfactory sense

- Focused on my works -

Baek, Ye Won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is research for master's degree which is an analysis on the background of formation and plastic expression of my print works created from 2010 to 2012 with the theme of scent.

The world we are living in becomes the object of sense and perception. Some just experience the object with senses and others imagine something based on emotions and memories on the perception. In fact, arts start from here. Such representation is expressed as it develops as one's own subjective representation through imagination and analogy. Dancers express through their motion, musicians use rhythm, and artists use their own plastic language. While they do such creative activities, sense gives us a lot of signals. Human classified this sense as five senses. One

sense influences others with mutual connection of synesthesia. The association of synesthesia is also based on human's five senses. The five senses have close connection in our inside and have metaphoric relations with other domains. It is because we all have individual sensitivity elements. Sensitivity can be seen as the ability of mind responds to stimulus accompanying with experience and it includes feelings and emotions. These are sometimes expressed through impromptu or thinking.

Among five senses, I recognized that scent arouses diverse sensitivities and imaginations through invisible sense of smell which can't be recognized with eyes. It became a plastic material. At first, I approached the invisible original characteristic felt with smell in the aspect of sense, and tried to visualize it thr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 The feeling and emotion of memory caused form this is expressed in the process that the internal trace in my subconscious awareness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a form. As if we listen to music and have a special feeling, the expression of scent caused by stimulation with sense of smell. The reason of such emotional inspiration is because it may causes synesthesia images through exchange with other domain.

Therefore, I tried to induce the image or form felt with certain scent through cup or plant which are indirect object that scent and warmth are carved in. Abstract form and specific form were mixed the express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the work. I used both expanded and applied methods of printing such as distortion of form in digital environment and embossing that scent is carved in. And I

expressed scent through drawing for the expression of tactile sensation after the process of work.

Based on this research, I retraced the background of forming my form and induced understanding through photos and explanation on the works. Moreover,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seek the direction of improved work.